



오륙도 칼럼



박 성 배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큰 집으로 가면, 더 좋은 차를 타면,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과연 그럴까요?

성실함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30대 초반에 이미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평생 쉬면서 누리며 살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소유했던 사람,

백만장자가 되면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

그는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그가 ‘큰 것이 성공(big is success)’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인 오스트리아의 백만장자였던 카를 라베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 돈 전부를 가지고도 그토록 갈망하는 만족감과 행복함을 살 수 없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비천한 삶, 고귀한 삶

어느 날 그는 자기가 번 전 재산을 내 놓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돈밖에 모르던 부자, 전 재산을 진정한 행복과 맞바꾸는 삶을 시작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보다 더 비천한 삶은 없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보다 더 고귀한 삶은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 학력, 부요함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남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닌 ‘비천한 사람’ 일 뿐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사는 사람이라도, 형편이 여의지 못해 배움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이라도, 물질

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도, 남을 위할 줄 알고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고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중의 제일은 사람이라”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도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었고 예수님의 행복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옹호중앙교회는 10년 전 중앙노인대학을 시작하였습니

다. 매주 15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해드리며 함께 소풍도 다니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1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성탄감사 사랑의 쌀과 연탄나눔기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어려운 이웃이 생길 때마다 지갑을 열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는 새벽부터 박스를 수집하여 관감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남편의 사업부도로 많은 빚을 안은 채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운데서도 매주 수십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담아 나누어드리고 맛있는 밥을 지어서 나누어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물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니

까” 하시는 그 모습이 천사와 같습니다.

노인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독거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사랑의 쌀과 연탄나눔기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향해 지갑을 열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고, 행복을 나누려고 하면 할수록 정작 그 분인들이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더욱 행복해진다는 깨달음입니다.

12월은 날씨보다 마음이 더 추운 계절입니다. 추운 마음엔 사랑보다 더 따뜻한 난로가 없습니다. 많이 가졌으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악성 가난뱅이’입니다. 적게 가졌으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보다 더 비천한 삶은 없고 내 몸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하며 사는 삶보다 더 고귀한 삶은 없습니다.

옹호중앙교회 담임목사



<203>

채 규 중



선영의

1000자 지혜

103

답답한 사람

외국사파과의 대화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여 가슴을 치고 심을 때가 많다. 말의 뜻과 말의 핵심을 모르고 자기 판단으로 일을 했다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조직사회에서의 일은 혼자만의 생각은 위험하여 서로의 의견을 듣고 최선을 택하여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굳은 결심을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뼈를 깎는 수련 끝에 마침내 천안(天眼)을 얻게 되었다. 그의 신통력은 멀리 있는 것은 물론 땅속 깊이 묻혀있는 보물까지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은 몹시 기뻐하며 가까운 신하를 불러 말했다.

“신통력을 가진 신선이 계신다면? 그 신선을 어떻게 대접해야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겠나?”

“왜 그러신가요?” “짐의 왕좌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를 잘 모셔 보물을 가득 채워야겠어.”

어리석은 신하의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왕의 신임을 독차지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었다.

“대왕님, 걱정마십시오! 소신 이...”

신하는 그 길로 신선에게 달려가 예리한 칼로 신선의 두 눈알을 뽑아버린 것이다. 신하는 그 것을 들고 왕에게 달려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이제 그 신선은 우리나라를 영원히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냐? 네가 어떻게 하였길래 신선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느냐?”

어리석은 신하는 피가 묻은 눈을 앞에 붙여 불꽃 내뿜어 말했다.

“그 신선이 떠나지 못하도록 그의 두 눈알을 뽑아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그 신선의 눈알입니다.”

왕은 어이가 없어 혀를 꼰 꼰했다.

“신선의 천안을 통해 보물을 찾으려 했는데 네가 그의 눈알을 뽑아버렸으니 무슨 수로 보물을 찾은단 말이나? 쫓겨, 너를 가까이 둔 짐의 잘못이 크다.”

일이 잘 안되려던 사리사욕에 눈먼 권력자와 그에 아부아접하는 어리석은 부하들이 들끓기 마련이다. 그 나날에 그 밤, 이런 일은 없어야 할텐데.

번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교과서 재활용하자

수학생력시험이 끝나고 교과마다 고3학생들의 교과서와 참고서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그냥 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후배들에게 재활용하도록 대물림하거나 버릴 경우 폐휴지로 처리하여 그 돈으로 불우한 학생들을 도왔으면 한다.

정말이지 교과서와 각 과목마다 2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속 단속

문현금당단지 부근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문현2동 박진해님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문현금당단지 및 문현동 방면 문전 사거리 버스정류장 주변에 수시로 순찰 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주차차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현금당단지 및 문현동 방면 문전사거리 버스정류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대형 트럭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법사행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

<교통행정과·김문홍>



☎ 607-4075

남구청 광장에 운동기구 설치

남구청 앞 쉼터 주변에 저녁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으로 분주하다. 공원이랑이에는 협소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공원으로 활용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대인들이 그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시나마 살아있는 공기도 마시고, 스트레스도 날리는 운동이다.

■ 나의 생각

신비의 나무 이기대 우묵사스레피

우리고장 갈매길 예는 소문난 꽃들은 순 탄 지 오래 됐다. 계절마다 자취감춘 꽃을 생각하면 상통(傷痛)하여 보물을 잊은 듯하다.

그레도 남은 꽃들이라고 보존하기 위해 듣기 싫은 소리를 자주 하는 편이다.

수년간 장자산 일원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장자산 지킴이라고 내 앞에서 일행에게 소개도 시킨다.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얼굴이 뜨거울 때가 많다.

그간 지켜본 나무 중에 우묵사스레피 나무가 있다.

11월에 단성화(單性花)로 자웅이주(雌雄異株)또는 자웅이가(異家)로 꽃이 피는 유일한 종이다. 11월부터 피는 양성화 자웅동숙 나무는 송악이 있다.

사스레피나무 암나무는 작년에 꽃이 피어 성숙한 검은 열매가 달려 있는 가지와 잎겨드랑이를 피해 올래의 암꽃이 핀다. 수나무의 꽃은 수정시기를 맞추어 피는 단성 용연선속형 나무이다.

대다수의 양성화 자웅이숙(자웅일가)에서는 근친 수정을 막기 위해 용연선속으로 수꽃이 먼저 피고 암꽃이 그 후에 피어 다른 나무의 꽃가루받이를 한다.

우묵사스레피 나무는 유년기에 모두 수나무가 되어 짧은 꽃가루만 제공하여 성실한 종자를 생산하도록 도움을 자청 한다.

그러나 유년기를 지나고 청년기가 되면 주위의 나무 중 나이가 많은 나무가 암나무로 전환하여 암꽃을 피워 2~3년간 열매를 맺는다. 대부분 2년 주기로 암수 자웅이 바뀌었다.

그러나 꽃가루받이 거리를 벗어나 한그루만 단독으로 생육하고 있을 때는 특이한 현상으로 큰 가지별 자웅동숙 동숙이 되어

종자를 생산한다.

쉽게 풀이하면 큰 가지별로 암꽃까지 수꽃까지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수정(受精)하여 종자생산을 한다.

식물로 자연 환경에 적응하여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 멸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가 수정하는 최후의 방법까지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그루의 수나무와 두그루의 말채나무는 일원단지 단성화 자웅이가 화를 고집하며 인간으로부터 짝을 여의는 아픔을 감내(堪耐)하며 한해 한해를 먼 바다를 벗 삼아 천명을 다할 때까지 지조를 지키는 선비처럼 살아갈 결심 을 한 듯하다.

이와 같은 환경은 인간만이 자연의 생태를 바꿀 수 있는 집단이다.

과학이 배풀어 준 다양하고 편리한 기계 공구를 만들고 응용하여 나무를 훼손한 결과 때문에,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유전자 변형 및 인공 교배로 다른 종의 생산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식물의 표현을 소통하지 못한, 인간의 책임을 깨닫고 반성하여 하찮게 훼손하는 것은 하루빨리 멈추도록 관심과 교육이 절실한 기회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들과 같이한 수많은 초목이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싶다.

동남풍이 불어오는 봄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며, 산 저 너머에서 불고 있을 북동풍은 시샘하여 갈매빛 이기대 바다를 하얗게 부수며 재촉하고 있다.

자연을 이해 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나누고 환경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숙명(宿命)이다.

왕정문 (옹호3동·항동연구가)

남구 국민체육센터 1월 프로그램

(www.namgusports.or.kr)

프로그램	대상	교과목	참가비	수업시간	비고
수영	성인	월~금	66,000원	8A/7A/8A/9A/10A/11A/12A/13A/14A/15A/16A/17A/18A/19A/20A/21A/22A/23A/24A/25A/26A/27A/28A/29A/30A	주말수영 홈페이지 참조
		토/일	33,000원	13A/14A	50분
	자유아qua(12~38개월)	월~토	44,000원	14시	40분
	초등	월~금	44,000원	15A/16A/17A	주말수영 홈페이지 참조
		토/일	33,000원	15A/16A/17A	
	(유아~5~7세)	월~수	25,000원	15A/16A/17A	초등
		토/일	30,000원	15A/16A/17A	
아쿠아로빅	성인	월/토/일	60,000원	12A/15A/18A/12A/13A/15A/16A	50분
헬스	청소년 이상	월~토	44,000원 (청소년: 38,000원)	06:00 ~ 22:00 (GX프로그램 1월 5회 운영)	자유
		토/일	22,000원 (청소년: 17,000원)	09:00 ~ 19:00 (일요일은 합달에 2회 오픈)	
주말헬스	성인	토/일	110,000원 (청소년: 88,000원)	06시 ~ 22시 (매시간 수업)	수요일 자유연습
		토/일	77,000원 (청소년: 66,000원)	9A/10A/11A/12A/13A/14A/15A	50분
요가	성인	월/수/금	40,000원	8A/9A/10A/11A/12A/13A/14A/15A/16A/17A/18A/19A/20A/21A/22A/23A/24A/25A/26A/27A/28A/29A/30A	50분
		토/일	30,000원	12A/13A/14A/15A/16A/17A/18A/19A/20A/21A/22A/23A/24A/25A/26A/27A/28A/29A/30A	
에어로빅 발라데스	성인	월/수/금	50,000원	9A/10A/11A/12A/13A/14A/15A/16A/17A/18A/19A/20A/21A/22A/23A/24A/25A/26A/27A/28A/29A/30A	50분
		토/일	40,000원	12A/13A/14A/15A/16A/17A/18A/19A/20A/21A/22A/23A/24A/25A/26A/27A/28A/29A/30A	
한국무용	성인	월/수/금	40,000원	12A/13A/14A/15A/16A/17A/18A/19A/20A/21A/22A/23A/24A/25A/26A/27A/28A/29A/30A	50분
		토/일	30,000원	12A/13A/14A/15A/16A/17A/18A/19A/20A/21A/22A/23A/24A/25A/26A/27A/28A/29A/30A	
댄스스포츠	성인	월/수/금	40,000원	12A/13A/14A/15A/16A/17A/18A/19A/20A/21A/22A/23A/24A/25A/26A/27A/28A/29A/30A	50분
		토/일	30,000원	12A/13A/14A/15A/16A/17A/18A/19A/20A/21A/22A/23A/24A/25A/26A/27A/28A/29A/30A	
어린이유형댄스	초등	월/수/금	38,000원	17A	50분
		토/일	25,000원	21A	
어린이발레	유아~초등	월/토/일	69,000원 (3개월)	18A/17A/11A/12A/13A	50분
		토/일	44,000원 (청소년: 38,000원)	18A/19A/20A/21A/22A/23A/24A/25A/26A/27A/28A/29A/30A	
배드민턴	성인/청소년	월~금	44,000원 (청소년: 38,000원)	18A/17A	50분
		토/일	25,000원	9A	
음악놀이교실	초등	월/수/금	40,000원	13A	50분
		토/일	25,000원	14A/15A	
축구교실	초등	월/토/일	25,000원	14A/15A	50분
		토/일	25,000원	14A/15A	
농구교실	초등	월/토/일	25,000원	14A/15A	50분
		토/일	25,000원	14A/15A	
오리안교실	초등	월/토/일	25,000원	14A/15A	50분
		토/일	25,000원	14A/15A	
태권도교실	어린이	월/수/금	33,000원	16A/17A	50분
		토/일	30,000원	16A/17A	
체력교실	유아~8세	월/토/일	69,000원 (3개월)	12A	50분
		토/일	44,000원 (3개월)	13A	
체력교실	8세이상	월/토/일	69,000원 (3개월)	12A	50분
		토/일	44,000원 (3개월)	13A	